

# 인구 조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

저자: 메간 마우리

번역: 엘렌 홍 화이트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질문: 2020년 인구조사에서 성소수자, 즉 LGBTQ\* 들의 데이터를 모으나?**

**답: 2020년 센서스는 동거하고 있는 동성 커플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라는 질문에 “동성의 남편/부인/배우자”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성의 동거인**”에 두가지 응답선택을 추가한다. 이 두가지를 추가로 동성 커플들의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싶은 의도다.

그러나, 센서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수집하지않는다.

- 동거하지 않는 동성 커플들
- 트랜스젠더들
- 범성애자들\*
- LGBTQ 미혼들
- 이성커플들중에 양성애자들

**질문: 2020년 센서스를 통해 LGBTQ 커뮤니티에 대하여 우리가 알수있는것들은 무엇인가?**

**답: 센서스는 동성커플들의 데이터만 수집할뿐 LGBTQ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별로 알수있는것들이 없다.**

10년전에 모은 데이터에 따르면 동성커플들의 민족의 다양성, 지리적 분포, 주지방의 총인구,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퍼센트만 알수있다.

동성커플들의 격는 인생경험들은 더 방대한 LGBTQ 인구들의 경험을 다 비추지 못한다.

예를 들면, 센서스는 동성과 이성 커플들의 실업률은 거의 비슷한걸로 보도한다. 그러나, 전체적 LGBTQ 커뮤니티의 실업률은 그렇지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온다.

[미국진보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인들을 위한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트랜스젠더들 14.3%
- \*시스젠더 4.3%
- LGBTQ 여성 7.2%
- LGBTQ가 아닌 여성 4.4%

이런 차이점은 센서스가 아주 작은 비율의 LGBTQ 커뮤니티를 토대로 한 집계결과만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질문: 언제부터 센서스는 처음 동성 커플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나?**

**답: 1990년도에 센서스 정부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인”을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으면서이다.**

그 당시에, LGBTQ옹호자들은 동성커플들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인”을 선택하기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캠페인은 게이나 레즈비언 들을 고려하여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센서스가 더 민감하게 배려해 주길 바래서였다. 그러나 센서스 정부는 동성 커플들의 응답들을 발표하는 대신 그들이 성별에 응답을 잘못 보고한걸로 간주해 결국은 이성커플로 집계되고 말았다. 지난 2000년도에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인”을 “가구주와의 관계”라는 질문을 넣었다. LGBTQ 옹호자들은 센서스 정부를 더 압박하여 공공 데이터에 동성 동거인의 성별을 정부에서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할것을 권했다.

센서스 정부는 일단 동의했다. 그러나, 또 다시 동성 커플들이 “결혼한 파트너”로 표시한 답 들을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로 바꿔 센서스의 먼저의 실수까지 덮으려했다.

**질문: 트랜스젠더나 범성애자들은 성별에 관한 센서스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하나?**

**답: 2020년 센서스에선 “남자” 아님 “여자”로만 답할수있게 되어있다.**

상당한 수의 트랜스젠더나 대부분에 범성애자들은 그들의 성별을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설문 결과로는 누가 트랜스젠더인지 알수없다. 불행히도, 대부분에 범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억지로 평생 여자 아님 남자, 둘중에 하나만 고를수밖에 없었다. LGBTQ운동가들은 트랜스젠더와 범성애자들 커뮤니티를 위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것을 권장해왔다. 그리고, 운동가들은 트랜스젠더와 범성애자들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수집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에 힘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트랜스젠더와 범성애자들이 받을수있는 혜택들은 다음과 같다.

- **센서스는 자기 정체성을 격려한다.** 질문 하나하나 마다 “성별” 말고도 민족의 대한 질문을 포함, 센서스 응답자가 가장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기를 바란다.
- **센서스 정부는 다른 기록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어떤 트랜스젠더나 범성애자들은 자신의 신상서류, 즉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같은 것들로 자신의 성별을 알릴수 있다. 그렇게 신상서류를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나, 센서스 정부는 응답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런 자료들을 다른 기록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 **만일 “성별”난에 표시를 안 하거나 둘다 표시할 경우엔 센서스 정부에서 “정답”을 추측해서 올린다.** 만일 설문지가 완성되지않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센서스 정부에서 다시 물을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와 연락이 안되면 그냥 “돌리기”, 즉 통계로 처리해서 답을 올리기도 한다.

메간 마우리는 전국 성소수자 대책본부에서 정책감독으로 있으며, 현재는 퀴어 더 센서스 캠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메간은 조지타운 법대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홀요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준 석사학위, 그리고 메사추세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LGBTQ 란 Lesbian 레즈비언, Gay 게이, Bisexual 양성애자, Transgender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 Queer 또는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Questioning

\*Cisgender란 자신이 타고난 '지정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동일하다.' 혹은 '일치한다.' 고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Nonbinary 범성애란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 정체성과 성적 및 낭만적인 오리엔테이션의 겹치기 또는 뚜렷한 경계를 가짐. · 두 명 이상의 성별; · 성별 없음. · 성별 간 또는 성별 정체성이 변동하는 경우. · 제 3의 성별 또는 기타 성별; 성별에 이름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